

滋陰降火와 引火歸原 治法の 의미에 대한 고찰

方正均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考察關於滋陰降火與引火歸原治法的意思

方正均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滋陰降火의 治法適用於陰虛火動의 病機, 原因是與相火有關의 肝血與腎精不足, 血不足可用知柏四物湯類, 精不足可用大補陰丸類, 所以可分開使用. 降火之意思是降離開正常軌道의 相火, 並不是將妄動의 相火歸于下焦, 是使之中節而布於全身. 引火歸原의 治法適用於陰虛陽盛의 病機, 補陰精而引火, 助腎陽而使命門完成正常機能. 此法의 常用方劑是腎氣丸, 包括六味之劑以補陰精而引火. 此方包括의 藥物當中, 還有附子肉桂, 此藥物의 意有二. 其一是助命門之火而行水. 其二是助命門之火而化水, 其化水是此法之治本之法. 較滋陰降火與引火歸原, 滋陰降火法의 陽盛較重, 引火歸原의 命門衰較甚.

關鍵詞：滋陰降火, 引火歸原, 行水, 化水

I. 緒論

모든 사물에는 각기 나름대로의 명칭이 부여된다. 이 명칭을 통해 우리는 그 사물을 직접 접하지 못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명칭을 탐구함으로써 그 본질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表意文字로 이루어진 한의학의 명칭은 더욱 그러한 측면이 있으니, 그 이름 속에 명칭이 담고 있는 많은 뜻을 함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滋陰降火와 引火歸原의 治法은 “陰虛陽盛”이라는 동일한 원인에서 유발된 병증을 치료하는 治

法이다. 이와 같이 그 원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는 측면이 있어왔다. 그러나 虛火의 輕重·命門火의 衰微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기에 그 치료법이 구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滋陰降火와 引火歸原 治法의 내용을 字句의 의미와 常用되는 藥劑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引火歸原 治法에 상용되는 腎氣丸의 경우 病機와 藥劑에 대한 이해가 상충하는 면이 있기에 구성 藥物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滋陰降火

丹溪는 인체를 “陽常有餘, 陰常不足”으로 인식하면서, 질병의 발생에 대해 陰不足으로 인한 相火의 妄動을 하나의 주요한 원인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相火는 常과 變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常의 相火는 인체 생명활동의 상징으로 인간의 생명활동이 유지되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고¹⁾, 이에 비해 變의 相火는 大勞·醉飽·房勞·五志之動에 의해 妄動된 것으로²⁾, 丹溪는 이를 “元氣之賊”으로 규정짓고 있다³⁾. “陰虛火動難治”⁴⁾라는 인식아래, 陰不足으로 야기된 變의 相火 즉 妄動된 相火를 치료하는 治法으로 제시된 것이 滋陰降火라는 治法이다. 이 滋陰降火의 治法은 구체적으로 살펴볼 문제가 있으니 滋陰과 降火의 의미이다.

첫째, “滋陰”에서 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丹溪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相火와 관련시켜 그 의미를 설명해 볼 수 있다. 그는 相火가 肝과 腎에 의탁하고 있다고 하였고, 또한 肝腎의 陰이 相火를

구비하고 있다고 하였다⁵⁾. 즉, 肝은 血을 저장하고 있고 腎은 精을 저장하고 있는데, 陰인 血과 精이 相火를 구비하고 있다고 하여 相火를 陰中之火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滋陰에서의 陰은 구체적으로 肝血과 腎精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血不足으로 야기된 陰虛火動에는 知柏四物湯類를, 精不足으로 야기된 경우에는 大補陰丸類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降火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丹溪는 妄動한 相火에 대해서 그 치료법을 “降火”라고 하였지, 瀉火나 清熱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 그는 火熱證의 치료법에 대해 實火·虛火·鬱火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니, 實火에 대해서는 “實者可瀉”라고 하여 黃連解毒湯類의 苦寒한 약을 사용하였고⁶⁾, 鬱熱에 대해서는 “鬱者可發”이라고 하여 瀉陰火升陽湯 또는 升陽散火湯을 사용하였다. 이에 비해 虛火에 대해서는 “虛者可補”라고 하였으니⁷⁾, 虛火가 바로 妄動한 相火이고 이 경우의 치료법이 “降火”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5) 朱震亨, 『丹溪醫集·格致餘論·相火論』, 人民衛生出版社, 1993, 38~39쪽

“天主生物, 故恒於動, 人有此生, 亦恒於動, 其所以恒於動, 皆相火之爲也。見於天者, 出於龍雷, 則木之氣, 出於海, 則水之氣也。具於人者, 寄於肝腎二部, 肝屬木而腎屬水也。膽者, 肝之府, 膀胱者, 腎之府, 心包絡者, 腎之配, 三焦以焦言, 而下焦司肝腎之分, 皆陰而下者也。天非此火不能生物, 人非此火不能有生。天之火雖出於木, 而皆本乎地, 故雷非伏, 龍非蟄, 海非附於地, 則不能鳴, 不能飛, 不能波也。鳴也, 飛也, 波也, 動而爲火者也。肝腎之陰, 悉具相火, 人而同乎天也。”

6) 이 치료법은 劉河間의 사상을 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劉河間은 火熱病을 表證과 裏證으로 구분하여 치료하면서, 表證은 汗解시키고 裏證은 下法을 주된 치료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下法을 쓰는 裏證의 火熱病에 있어서도 그 輕重에 따라 치료법을 달리하고 있는데, 黃連解毒湯을 쓰는 경우는 熱毒이 極甚하여 遍身清冷疼痛, 咽乾或痛, 腹滿實痛, 悶亂喘息, 脈來沈細한 경우, 즉 熱이 극심하게 쌓여 陽厥陰傷한 證에 적용하였다.

陳大舜 外 2人 譯음, 맹운재 外 9인 옮김, 『各家學說』, 대성의학사, 2001, 93~94쪽

7) 前掲書, 244~245쪽

1) 朱震亨, 『丹溪醫集·格致餘論·相火論』, 人民衛生出版社, 1993, 38~39쪽

“天主生物, 故恒於動, 人有此火, 故恒於動, 其所以恒於動, 皆相火之爲也。”

“天非此火, 不能生物, 人非此火, 不能有生。”

2) 炎沛然 外6人, 『中醫各家學說』, 知音出版社, 民國82年, 216~217쪽

3) 朱震亨, 『丹溪醫集·格致餘論·相火論』, 人民衛生出版社, 1993, 39쪽

“周子曰：神發知矣, 五性感物而萬事出, 有知之後, 五者之性爲物所感, 不能不動, 謂之動者, 即『內經·五火也。相火易起, 五性厥陽之火相扇, 則妄動矣, 火起於妄, 變化莫測, 無時不有, 煎熬眞陰, 陰虛則病, 陰絕則死。君火之氣, 經以暑與濕言之; 相火之氣經以火言之, 蓋表其暴悍酷烈, 有甚於君火者也, 故曰相火元氣之賊。”

4) 朱震亨, 『丹溪醫集·丹溪心法·火』, 人民衛生出版社, 1993, 218쪽

相火에 있어서 實火나 鬱火와는 다른 치료법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첫째, 虛火 즉 相火의 妄動은 外邪의 侵襲을 받거나 혹은 火邪가 內鬱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陰이 不足한 것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滋陰을 통해 妄動한 相火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常의 相火는 정상적인 범위를 유지할 경우 인체 생명활동의 상징으로 없어서는 안될 존재인 것이다. 다만,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즉 動하여 中節을 지키기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와 같이 정상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相火가 妄動하게 되고, “炎上”이라는 火의 속성을 좇아 상부로 치솟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清熱이나 瀉火의 치법을 써서 相火를 소멸시켜서는 안되고, 다만 정상범위를 일탈한 相火를 정상범위로 내리는 것이 필요하니, 이것이 바로 “降火”의 의미인 것이다.

그렇다면 降火는 火를 어디까지 끌고 내려오는 것인가? 이에 대해 丹溪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물론, 그는 相火를 肝腎과 연관시켜 陰中之火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相火를 下焦로 끌고 내려온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相火란 전신의 활동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전신에 두루 퍼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降火는 어떤 특정 지역, 즉 下焦로 火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妄動하지 않고 中節을 지키게 하여 相火가 全身에 고루 퍼지게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2. 引火歸原

引火歸原은 腎精不足으로 인해 야기된 陰虛陽盛의 病機를 치료하는 治法으로, 引火下行시켜 陰陽이 조화를 이루고 虛火가 上升하지 않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引火歸原의 治法에 대해 論者は 引火歸原의 의미, 그리고 주로 사용되는 腎氣丸의 方解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引火歸原”에서 火의 의미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實火가 아닌 腎精不足으로 야기된 虛火이다. 그러므로 清熱이나 瀉火의 治法을 쓸 수가 없고 “引火”, 즉 上炎한 虛火를 引導하여 내린다는 표현을 쓴 것이다. 한편, “歸原”이라고 하여 근원으로 되돌린다고 하였는데, 인체에서 근원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程林은 腎間動氣라 하였고⁸⁾, 柯琴은 命門이라 하였으며⁹⁾ 尤在涇은 腎中の 元陽이라고 하여¹⁰⁾, 역대 醫家들은 대체로 命門으로 이해하고 있다¹¹⁾. 이상의 내용을 통해 근원자리가 命門이라고 정리하였을 경우, 歸原의 의미가 亢盛된 虛火를 引導하여 命門으로 보내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해 논자는 歸原의 의미를 腎陽의 기능

8)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知音出版社, 民國 83年, 168쪽

“程林 : “腰者腎之外候, 腎虛則腰痛, 腎與膀胱爲表裏, 不得三焦之陽氣以決瀆, 則小便不利, 而少腹拘急, 州都之官亦失其氣化之職, 水中真陽已虧, 腎間動氣已損, 是方益腎間之氣, 氣強則便溺行而少腹拘急亦愈矣.””

9) 前揭書, 168쪽

“柯琴 : “命門之火, 乃水中之陽, 夫水體本靜而川流不息者, 氣之動, 火之用也, 非指有形者言也, 然少火則生氣, 火壯則食氣, 故火不可亢, 亦不可衰, 所云火生土者, 即腎家之少火, 遊行其間, 以息相吹耳, 若命門火衰, 少火幾於熄矣, 欲暖脾胃之陽, 必先溫命門之火, 此腎氣丸納桂附於滋陰劑中十倍之一, 意不在補火, 而在微生火, 即生腎氣也, 故不曰溫腎, 而名腎氣, 斯知腎以氣爲主, 腎得氣而土自生也, 且形不足者溫之以氣, 則脾胃因虛寒而致病者, 固瘕, 即虛火不歸其源者, 亦納氣而歸封蠶之本矣.””

10)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金匱要略心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19쪽

“下焦之分, 少陰主之, 少陰雖爲陰臟, 而中有元陽, 所以溫經臟, 行陰陽, 司開闔者也, 虛勞之人, 損傷少陰腎氣, 是以腰痛, 少腹拘急, 小便不利, 程氏所謂腎間動氣已損者是矣, 八味腎氣丸補陰之虛, 可以生氣, 助陽之弱, 可以化水, 乃補下治下之良劑也.”

11) 命門에 대한 논쟁은 明代에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니, 그 내용을 하나로 통일시키기는 어렵고,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左腎右命門說, 둘째 兩腎間 七節之旁說, 셋째 兩腎의 總稱說, 넷째 產門 혹은 精關說, 다섯째 腎間動氣說이다.

홍원식·윤창렬 편저, 『증보 중국의학사』, 一中社, 2001, 353~354쪽

을 도와 근원 즉 命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고 싶다. 즉, 陰精을 보충해 주고 腎陽을 도와줌으로써 命門의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게 해준다는 의미로 “歸原”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引火歸原의 治法에 적용될 수 있는 처방으로 腎氣丸¹²⁾¹³⁾을 들 수 있는데, 腎氣丸의 方解를 통해 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腎氣丸은 六味地黃丸에 附子和 桂枝¹⁴⁾가 加味된 처방이다¹⁵⁾. 六味地黃丸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12) 여기서 말하는 腎氣丸은 『金匱要略』에 나오는 腎氣丸을 지칭한다. 『金匱要略』에 나와있는 腎氣丸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乾地黃 八兩, 薯蕷(山藥) 四兩, 澤瀉 三兩, 山茱萸 四兩, 茯苓 三兩, 桂枝 一兩, 附子 一兩炮, 牡丹皮 三兩”

『仲景全書·金匱要略』, 大星文化社, 1989, 438쪽

13) 腎氣丸을 引火歸原의 처방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추후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清代 醫家인 柯琴의 주장을 따라 腎氣丸의 처방 의미를 引火歸原으로 보았다. 柯琴은 봄에 나타나는 咯血病을 腎氣丸으로 치료하면서 그 치료 의의를 “壯水之主, 以制陽光”의 引火歸原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咯血을 陰虛陽盛하여 나타나는 虛熱上亢之證의 病機로 인식하여, 腎陰을 보태줌으로써 虛陽을 억제하여 끌고 내려오는 처방을 사용한 것이다.

“近人蔡氏引『醫學舉要』記載此案謂：孫介夫春間病咯血，旋愈旋作，初服苓連而愈，繼而寒涼不效，更進參耆而愈，後用溫補不效，復用寒涼而又无效云云(浙江中醫學院學報1:40, 1983). 『傷寒論翼·孫序』記載柯氏對此案的論述：“斯未求其本耳，諸寒之而熱者取諸陰，所謂求其屬也。君病陰虛而陽盛，以寒治之，陽少衰，故病少愈耳。復進寒涼而陽亦虛，得溫補而病稍愈耳。再進溫補而陰愈虛，復進寒涼而陰陽俱虛，故綿連不解矣。豈知臟腑之源，有寒熱溫涼之主哉。必壯水之主，以制陽光，斯爲合病。”因立腎氣丸方，一劑而喘嗽寧，再劑而神氣爽。……柯氏用腎氣丸壯水之主，以制陽光，實寓“引火歸原”之義。”

裘沛然 外6人, 『中醫各家學說』, 知音出版社, 民國 82年, 78쪽

14) 『金匱要略』에서는 桂枝라고 하였지만, 宋代에 편찬된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桂枝를 肉桂로 교체하였으니, 이후로 腎氣丸에 桂枝보다는 肉桂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에 논자는 이후로는 肉桂로 논지를 전개해 가도록 하겠다.

中國中醫研究員 등 主編, 『中醫大辭典』, 人民衛生出版社, 1995, 907쪽

15) 宋代의 저명한 小兒科 醫家인 錢乙이 腎氣丸을 變

乾地黃¹⁶⁾·山藥·山茱萸·澤瀉·牡丹皮·茯苓으로 구성되어 腎精을 補하는 처방이다. 즉, 腎氣丸을 “壯水之主, 以制陽光”의 효능이 있다고 하였을 때, 六味地黃丸에 해당하는 약물이 이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니, 바로 “引火”의 의미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肉桂와 附子の 기능과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腎氣丸이 “壯水之主, 以制陽光”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을 때, 肉桂와 附子가 이 처방에 배합이 되어야 하는가? 肉桂와 附子는 溫性의 약물로 溫補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많은 醫家들은 肉桂와 附子에 대해 그 효능을 “溫陽化氣”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腎氣丸을 腎陽不足으로 인한 虛勞證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¹⁷⁾.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腎精不足으로 야기된 陰虛陽盛한 病機와는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腎氣丸에서 肉桂와 附子の 작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논자는 다음의 두 가지 기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肉桂와 附子는 腎陽不足을 補하는 의미보다는 腎精을 補하는 藥物을 운행시키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陰不足으로 虛火가 上炎해 있는 상황에서, 補陰之劑로 腎精을 補하고 아울러 藥氣를 상부로 운행시킬 수 있는 藥劑를 加味할 필요성이 있으니, 肉桂와 附子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腎陽을 補하는데 주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命門之火를 도와 藥氣를 상부

裁하여 六味地黃丸을 만들었기 때문에 六味地黃丸에 附子和 肉桂를 加味했다는 말을 쓸 수 없지만, 後代에 오히려 六味地黃丸을 常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附子和 肉桂를 가미했다는 말을 썼다.

홍원식·윤창렬 편저, 『증보 중국의학사』, 一中社, 2001, 271쪽

16) 『金匱要略』에서는 乾地黃이라고 하였지만, 宋代에 편찬된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乾地黃을 熟地黃으로 교체하였으니, 이후로 腎氣丸에 乾地黃보다는 熟地黃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前掲書, 907쪽

17)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知音出版社, 民國 83年, 167~168쪽

로 운행시켜 上炎한 火를 끌고 내려오는 것이 주된 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니¹⁸⁾, 이 기능을 “行水”로 표현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腎氣丸의 六味之劑로 補陰을 하여 급히 陰虛陽盛한 病機를 조절하고, 肉桂와 附子로 腎陽을 도와 “化水”의 작용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⁹⁾. 즉, 命門의 火가 衰하여 化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陰虛한 병기가 발생하였으므로, 六味地黃丸으로 陰精을 補하는 것은 標治가 될 수 있고, 肉桂와 附子로 命門의 火를 북돋우어 줌으로써 化水의 작용이 원활히 유지되게 하는 것이 本治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후대에 腎氣丸을 腎陽을 補하는 처방으로 이해하는 이유는 바로 腎氣丸의 本治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滋陰降火와 引火歸原의 구분

滋陰降火와 引火歸原의 治法은 구별이 되어야

18) 柯琴은 水의 本體는 靜하니 水를 쉬지 않고 운행시켜주는 것이 바로 命門의 火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腎氣丸에서 桂枝(肉桂)와 附子의 작용은 補火에 있는 것이 아니라 命門의 火, 즉 腎氣를 생하여 陰精을 運行시켜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命門之火，乃水中之陽。夫水體本靜而川流不息者，氣之動，火之用也，非指有形者言也。然少火則生氣，火壯則食氣，故火不可亢，亦不可衰。所云火生土者，即腎家之少火，遊行其間，以息相吹耳。若命門火衰，少火幾於熄矣。欲暖脾胃之陽，必先溫命門之火，此腎氣丸納桂附於滋陰劑中十倍之一，意不在補火，而在微生火，即生腎氣也。故不曰溫腎，而名腎氣。斯知腎以氣爲主，腎得氣而土自生也。且形不足者溫之以氣，則脾胃因虛寒而致病者，固瘕，即虛火不歸其源者，亦納氣而歸封蟄之本矣。”
前揭書，168쪽

19) 尤在涇. 『尤在涇醫學全書·金匱要略心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19쪽

“下焦之分，少陰主之。少陰雖爲陰臟，而中有元陽，所以溫經臟，行陰陽，司開闔者也。虛勞之人，損傷少陰腎氣，是以腰痛，少腹拘急，小便不利。程氏所謂腎間動氣已損者是矣。八味腎氣丸補陰之虛，可以生氣，助陽之弱，可以化水，乃補下治下之良劑也。”

함에도 불구하고, 陰虛陽盛이라는 동일한 病機를 가지고 있기에 혹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논자는 두 治法의 차이점을 知母·黃柏과 附子·肉桂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知母와 黃柏은 清熱藥에 귀속이 되어 이를 오래 복용하면 오히려 陰液을 耗損하여 燥證에 빠지게 된다. 이를 통해 본다면, 滋陰降火의 治法을 이용하는 病機의 陽盛정도가 引火歸原의 病機보다 더 심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물론, 滋陰降火 治法의 전체적인 의미가 清熱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妄動한 相火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여 標治의 의미로 知母와 黃柏의 清熱之劑를 加味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引火歸原의 治法에서 肉桂와 附子의 기능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腎精을 補하는 藥物의 運行을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滋陰降火의 病機와 비교했을 때, 命門의 衰微 정도가 더 심하여, 藥氣를 運行할 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命門之火를 도와 藥氣를 상부로 運行하려는 의도로 附子와 肉桂를 加味하였고, 바로 이것이 滋陰降火 治法과의 구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III. 結 論

滋陰降火의 治法은 陰虛火動의 病機에 적용할 수 있는 治法으로, 相火와 관련이 있는 肝血과 腎精의 부족이 원인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血不足으로 야기된 경우에는 知柏四物湯類를, 精不足으로 야기된 경우에는 大補陰丸類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한편, 降火의 의미는 정상범위를 이탈한 相火를 정상 상태로 내리는 것이니, 妄動한 相火를 下焦로 끌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中節을 지키게 하여 전신에 퍼져 있게 하는 것이다.

引火歸原의 治法은 腎精不足으로 야기된 陰虛陽盛의 병기에 적용할 수 있는 治法으로, 陰精을

보충해 줌으로써 引火를 하고 腎陽의 기능을 도와 命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治法에 상용하는 약제로는 腎氣丸을 들 수 있는데, 六味之劑가 포함되어 陰精을 보충하여 引火를 하게 된다. 이 처방에 함유된 肉桂와 附子는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으니, 첫째는 命門의 火를 도와 藥氣를 상부로 운행시키는 行水의 작용이다. 또 다른 면으로는 六味로 腎精을 補하는 標治를 하고, 肉桂와 附子로 命門의 火를 북돋우어 주어 化水의 작용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니 이를 本治라 할 수 있다. 후대에 腎氣丸을 腎陽을 補하는 처방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本治에 의미를 두어 이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滋陰降火와 引火歸原의 처방을 비교해보면, 滋陰降火의 처방에는 知母와 黃柏 등 清熱之劑가 加味된 것으로 볼 때 陽盛의 정도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引火歸原의 治法에는 肉桂와 附子が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命門의 衰微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仲景全書』, 大星文化社, 1989
2. 裘沛然 外 6人, 『中醫各家學說』, 知音出版社, 民國 82
3.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4.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知音出版社, 民國 83
5. 朱震亨, 『丹溪醫集』, 人民衛生出版社, 1993
6. 中國中醫研究員 등 主編, 『中醫大辭典』, 人民衛生出版社, 1995
7. 陳大舜 外 2人 엮음, 맹웅재 外 9人 옮김, 『各家學說』, 대성의학사, 2001
8. 홍원식·윤창렬 편저, 『증보 중국의학사』, 一

中社, 2001.